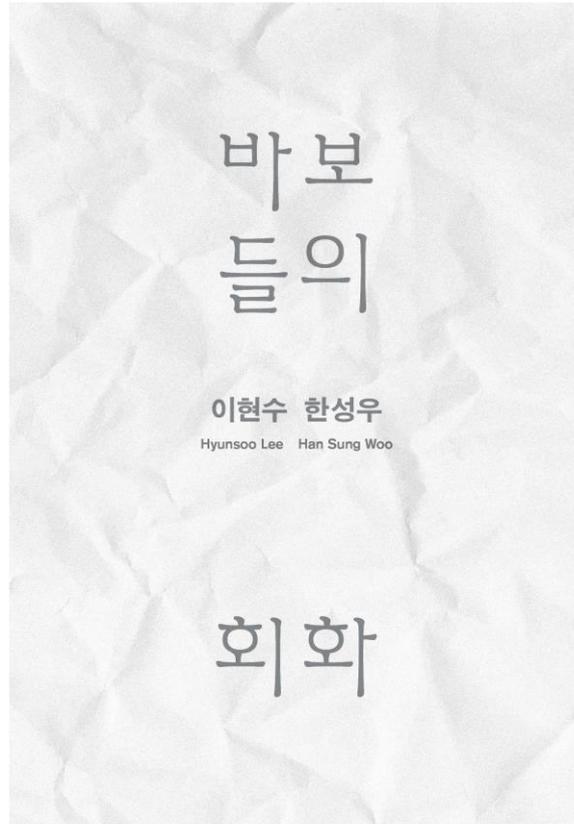


[보도자료]

이현수·한성우 2인전 <바보들의 회화>



○ 관람 안내

참 여 작 가: 이현수, 한성우

전 시 제 목: 바보들의 회화

일 정: 2019년 12월 13일(금) - 2019년 12월 31일(화)

장 소: 에이라운지 (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010-5222-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am-6pm (일, 월, 12/25 휴관)

○ 전시 개요

에이라운지(A-Lounge)는 오는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이현수·한성우 2인전 <바보들의 회화>를 진행한다. 드로잉과 회화를 주 매체로 작업하는 두 작가가 만나는 이번 전시는 두 작가가 서로의 작업 진행 과정을 300일 간의 대화를 편지를 통해 기록하고 이를 결과물과 함께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여주는 전시이다.

보통의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마주하는 것은 결과물인데 반해, 이번 전시는 그러한 보편성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로서 작가의 아이디어가 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편지'라는 매체를 통해 보여주고자 기획되었다. 이현수와 한성우는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평소에도 작업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두 작가가 나누는 대화는 두터운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과 진솔함이 더해져 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업에 대한 태도들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두 작가가 주고받은 편지들과 함께 첨부한 작업들을 통해 편지 속에 담긴 이러한 태도가 작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각 편지에는 그 날의 대화를 통해 작가들이 떠올린 작업에 대한 작가들의 태도가 반영된 작품들이 첨부되어있다. 편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이현수의 세밀한 표현과 대담한 선이 조화를 이루는 추상 드로잉들과 한성우의 작업실 풍경을 담은 드로잉들은 대상을 보는 태도와 그 태도가 어떻게 작업으로 이어져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현수의 강렬하고 거칠며 투박한 목탄 드로잉은 재료의 물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한성우의 회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편지라는 매체가 서로의 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발견하는 것도 이 전시의 또 다른 재미일 것이다.

주제로 만난 기획전이 아닌, 그림을 대하는 태도로 만난 이번 이현수·한성우 2인전 <바보들의 회화>는 그림의 중심부터 주변부까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회화와 드로잉이 선사하는 그림의 즉각적이고 순수한 시각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과 전시, 그 이면에 존재하는 평범하지만 쉬이 들을 수 없었던 작가들의 진솔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이현수

이현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각각 졸업한 뒤 뉴욕 SVA(School of Visual Arts)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2018년 <PLAYING DRAWING : before drawing>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과 <쌓고 쌓아 올리다>(175갤러리, 서울)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그룹전과 레지던시에 참여하며 드로잉을 주 매체로 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성우

한성우는 고려대학교 미술학부를 수료한 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수료하고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상과 추상의 경계 속에서 작업해온 한성우는 이번 전시를 통해 회화 작품과 드로잉을 선보인다. 그는 다수의 그룹전과 함께 특히 2017년에는 청주창작스튜디오에서 <가능한장면>, 온그라운드2에서 <땅 위의 밤>이라는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에이라운지에서 2017년 기획전으로 <땅 위의 밤>을 연 바 있다.

○ 편지 중 일부



Blue drawing series, 2016, 20.3x25.4cm, 8x10inches, color pencil on paper

성우에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를 고민만 하다가 근 한 달을 보낸 것 같아. 요 며칠 스트레스만 받다가 머리로 식힐 겸 한강에 산책을 나갔다. 날씨가 주워진 뒤부터 나가지 않았으니 정말 몇 달 만에 가게 된 것이지. 지난 여름부터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것이 너무 좋아 거의 매일 다녔었는데 말이야. 한강을 보면서 자전거를 탈 때는 뭐랄까...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거든. 오늘은 유독 추운 날씨에 자전거는 포기하고 그냥 걸기로 했다. 한강을 보면서 걷다보면 파편적인 생각들이 정리되고 바보들의 회화를 시작할 결심이 서겠지 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섰다. 근데 이상한 경험을 했다. 자전거를 탈 때 발을 허공에서 굴리는 몸짓과는 다르게 땅바닥에 발을 한 발자국씩 꺾꺾 누르며 걸으니 작업을 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 느낌이 여간 좋더라. 종이에 연필을 꺾꺾 눌러 그리는 기분이었어. 그렇게 한



목공실드로잉 _ 종이에 혼합매체 _ 30x30cm _ 2013

두 번째 이미지는 대학원에 들어와 처음 목공실을 들락날락 거리며 문득 시선이 머문 대상을 그려본 것인데 첫 번째 작업에 비해 이 작업은 감각보다는 감정에 집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순간들과 비슷한 결의 작업중에 형이 뉴욕에서 그렸던 벽 그림들을 같은 이유로 좋아해요. 나는 이 작업이 앞서 이야기 했던 순간에 이루어진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 형도 알겠지만 이런 작업은 내 작업과정 안에서 많지 않아요. 오래만에 이 작업들을 꺼내보며 이러 저러 생각해 해보게 되네.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뿔이와 아버지
2019
종이에 파스텔
18.2x12.8cm



이현수
모견도
2010
종이에 연필, 먹
73x42.2cm



한성우
무제 untitled
2019
캔버스에 유채
73x42.2cm



한성우
냉각탑 cooling tower
2012
종이에 혼합매체
29.7x21cm